

투데이 칼럼

역사를 바꾼 힘의 감동

나는 생애를 통해 3천편이 넘는 영화를 보았다. 어릴 때는 TV 주말의 명화, 극장을 이용했지만 문명의 발전에 따라 VTR, VCD, P2P사이트, 근대에는 ITV의 OTT(Over-The-Top) 서비스, 즉 넷플릭스나 티빙 등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다.

감동적인 명작을 꼽으라면 손가락으로만 셀 수 없을 정도지만 유독 꼽는 영화로 1964년 프랑크 하이라 감독의 흑백영화 '대열차 작전'(The Train)을 꼽는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이다. 내용은 예술품에 관심이 많은 나치 대령이 국립 파리 박물관에 소장된

수많은 미술품 등을 열차를 이용, 독일로 가져가려 하면서 시작된다. 이를 안 박물관장은 열차 관제사에게 이를 막아 달라고 설득했고

이때부터 기관사와 철도원 등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펼쳐 방해 작전을 펼친다. 철로 파손, 엔진에 기름붓기, 기어 파손 등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 공작에 참여한 수십명의 철도원 등이 나치군에 발각되어 처형당한다. 전쟁탈기, 미술품을 실은 열차는 결국 독일로 향하는데

연합군 전투기의 폭격을 막기위



홍민기

수필가

해 지붕에 적십자 표시를 하고 미술품 보호를 명분으로 야간운행을 요구.

여마다 가명을 달아 열차가 독일로 가는 것처럼 꾸며 파리로 돌아오게 한다.

이때 레즈탕스의 습격으로 나치 호송병은 전멸하는데

엔딩 장면에서 도주하는 나치 대령을 멈추게 하여 주인공(버트랑 가스터)은 총을 겨눈다.

이때 나치대령은 "당신은 이 미술품의 가치나 제대로 아는가?"라고 조롱한다.

주인공은 "나는 이 미술품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지 모른다.

다만 이 미술품을 당신들이 강취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죽어간 수많은 동료의 생명의 가치는 안다"며 총을 쏘아 사살한다.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되어 있을 때 독립을 위해 수많은 프랑스인

이 저항운동을 펼치고 35,000여명이 사망했다. 이들을 '레지스탕스'라 했다.

이 '레지스탕스(Resistance)'는 저항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독립,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활동가를 총칭하는 대표적 단어가 되었다.

우리나라 발전의 역사에는 헤아릴 수 없는 레지스탕스의 역할이 있었다. 조선시대 의병, 일제강점기 독립활동가, 625때 의병과 학도의용군.

근대 이후에는 독재에 항거하다 죽어간 자유민주 투사들이 모두 이 레지스탕스와 같은 존재이다. 이들의 노력이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적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었다.

이 독립과 자유민주 수호정신은 한국인의 정신이자 혼이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독재와 기득권자들

의 오만과 횡포에 시달리는 국가가 허다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라 자부하던 미국,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주 방위군이나 연방군이 시내에 배치되어

시민을 총과 장갑차로 위협하며 국가의 모든 조직, 공무원을 좌우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떠한가.

본래 '군국주의 극우성향은 해를 거듭하고 시대가 변해가도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국민의 여론은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다.

국민의 순종이나 노조가 없음을 자랑하는 이면에는 어릴 때 유치원에서부터 학교, 직장에 이르기까지 원혼, 교훈, 사훈을 통해 복종에 길들여진 국민과 사회.

역사로부터 이어진 사무라이 공포가 '훈네와 다테마에'라는 희안한 삼리의식을 자랑처럼 쇠뇌시켜 버렸다.

불법을 알고도 NO라고 하지 못하고 잘못되어지는 길을 바로 잡으려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나라이며, 그런 나라에 사는 것에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될까?

누구나 올바르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그 준법과 질서가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되도록 '저항하는 힘'이 권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

정읍 칠보 정순왕후 추모제

단종의 비(妃)인 정순왕후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기리는 행사가 정읍에서 열렸다.

정읍시 칠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송암문화재단은 지난 9월 13일 정순왕후 태생지인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740와 송현삼공원 특설무대에서 제2회 정순왕후 추모제와 동진강시민음악회를 개최했다.

정읍 칠보에서 태어난 정순왕후 송씨는 조선 왕실로 입궁하였으나 단종의 폐위와 사사라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 역사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도 왕비로서 남편의 곁을 지키며 연명했고, 82세까지 살아 조선 왕조사에 이름을 남겼다.

500년 호남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왕비라는 점에서 그녀의 생애는 지역사와 조선사 모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추모제 행사에서는 정순왕후의 삶을 기리는 창무곡 '정순왕후'와 정읍시립동악단

김놀이·버나놀이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동진강시민음악회'는 송현삼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음악회에서는 노래자랑과 경품추첨, 지역 농산물 나눔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무료 식사도 제공됐다.

정순왕후의 고향 칠보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을 비롯해 사찰과 누각, 서원, 불상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제례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마련됐다.

주민들은 "우리 고장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새기고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주민 화합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제29회 노인의 날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당프로그램발표회'가 9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렸다.

김두봉 연합회장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는 지역사회에 큰 자산으로 그 지혜를 후배 세대들과 공유하여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랑스러운 어른상'은 양북규 동암재단이사장이 후진양성과 장애인 직업재활 공로로, '공익상'은 김용식 전주시지회

우이2동 분회장이 수해복구, 아중저수지 정화활동 공로로, 이갑복 군산시지회 멋진인생자원봉사팀장이 선진 노인회 구축, 재능기부 공로로, 김남진 남원시지회 부회장이 봉사하는 노인조직 만들기, 전천후 게이 트볼장 신축 공로로, 문경식 부안군지회 수석부회장이 장학금(6백만원) 기탁과 교향사랑기부문화 확산 등의 공을 인정

받았다.

'애항상'은 정한규 익산시지회 송학동분회장이 빵 만들기 봉사활동, 경로당 환경개선 공로로, 장영선 완주군지회 부회장이 노인회 활성화, 지역 어르신 건강증진 기여 공로로, 노원근 순창군지회 순창읍분회장이 취약계층 및 공익사업 성금 기부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효행상'은 진안군 정미숙씨가 치매 시어머니(91세) 봉양과 가족화목 기여의 공을 인정받아 영예의 표창패를 안았다.

올해 기념행사에서는 특별히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가 함께 열려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발표회는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학습과 문화, 건강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무대였다. 시·군을 대표하는 14개 팀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독자제언

농기계 안전수칙 준수로 교통사고 예방하자

들판에는 황금불결이 넘실거리면서 농산물 수확과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이 되어 농촌 마을의 풍경은 경운기 및 트랙터의 운행하는 소리가 가득 차 있다.

농촌지역인 교항의 경우 다른 지역과 함께 교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부의 손길이 바쁘다보니 부주의에 의한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이 훨씬 높아 특별히 안전운전을 해야한다.

특히 수확철로 농기계 사용량이 많은 계절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운전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이다.

농번기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먼저, 농사철에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농기계 끼임에 쉬운 옷은 피해야 한다.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 농기계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농사철에 주로 이용하는 농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야간작업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농기계 도로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 및 야간반사지를 붙여 야간에 시인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같이 예방수칙을 사전에 준수하고, 농기계 사고의 원인이 운전 부주의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교항화를 들 수 있으므로 신체의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은 농기계 사용을 자제하고 여유로운 자세로 주변을 살피며 안전한 영농철과 함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김양미교항경찰서 경무계행정관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타임스퀘어 광장 메운 '노 킹스' 시위대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수많은 '노 킹스' (No Kings, 왕은 없다) 시위대가 모여 있다. 이날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